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통합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Integrat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with Culture Education

김용섭
서일대학교

Yong-Seop Kim(yong3047@hanmail.net)

요약

이 논문은 언어수업에서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정치, 경제, 역사, 예술, 문학 등 객관적인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문화인 주관적인 문화를 지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명한다.

본고에서는 언어수업에서 문화 지도를 할 수 있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Lange, Bennett 그리고 Moran의 방법을 혼합하여 재구성한 방법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중심적 세계를 탈피하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화와 목표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에 대한 자각력을 키우고 세 번째 단계는 목표 문화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교재는 영화를 사용한다. 영화 속에 나타난 문화적 양상이 일상과 관련된 주관적 문화이므로 언어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화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영화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르이므로 이점이 있다.

문화 교육을 위한 이 조그마한 제안이 나와 다른 인종들을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는 세상이 오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 중심어 : | 의사소통 능력 | 목표 문화 | 문화자각력 | 객관적인 문화 | 주관적인 문화 |

Abstract

The paper is about teaching culture in a language learning. There are many teachers who are afraid of teaching foreign language with culture. They are delighted to teach politics, economics, history, art and literature as objective culture. But they are hesitant to teach subjective culture which is connected with a communication competency.

The paper suggests three stages to instruct culture in a schoolroom. The first stage, it is growing out of the self-centered view. The second step, be developing self-consciousness through comparing mother culture with target culture. The last stage, it has to response to appropriately target culture.

The teaching materials for the model suggested are two movies. Because the cultural aspects in the moves are subjective culture, so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arget cultural situations in a language learning. This method which is teaching culture in a the language learning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y to teachers and learners. Most students like to watch a movie. The teaching material is The Chronicles of Narnia :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와 Guess Who?.

I hope that this suggestion for cultural teaching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each other.

■ keyword : | Communication Competency | Target Culture | Recognition Ability | Subjective Culture |

I. 배경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는 오래된 이야기이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목표언어의 문화를 무시하다면 유창한 바보(fluent fool)가 된다는 Bennett et. al.[3]의 말은 문화교육의 필연성이 강조된 비유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문화교육에 앞장서기를 두려워한다. Omaggio-Hadley[9]는 교사들이 목표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을 느낀 나머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실 문화를 교실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문화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그 다음 단계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oran[7]은 기존의 문화에 대한 정의가 많고 각각의 정의가 추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문화교육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Bennett et. al.[3]은 객관적인 문화(objective culture, Big C)와 주관적인 문화(subjective culture, little c)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객관적인 문화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나 역사, 예술 등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영역을 말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장 교사들이 가르치기 편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다. 반면에 주관적 문화는 외국어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과 관련된 작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가르치기 힘들어한다.

둘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다. 문화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목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Galloway[5]는 문화적 사실이란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삶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장소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변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위주로 문화교육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문화교육을 위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교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Bennett[2]의 DMIS(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가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DMIS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자기중심적 단계(Ethnocentric stage)와 자기 상대적 단계

(Ethnorelative stage)이다. 자기중심적 단계란 자기 문화적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단계이며, 이 단계는 3개의 과정(denial, defense, minimization)으로 나뉜다. 이 단계가 지나면 자기중심적 관점을 탈피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도 3개의 과정(acceptance, adaptation, integration)을 거친다. DMIS는 6개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문화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기술이 잘 되어 있으나 가르치기에는 복잡하고 적절한 교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Crawford-Lange 와 & Lange[4]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모델이 8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DMIS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다 보니, 문화교육이 상대적으로 대중 넘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간단한 모델로는 Moran[7]의 경험학습사이클(Experiential Learning Cycle)이 있다. Kolb[6]의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며? 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주장한다. Moran의 모델은 4단계이다. 참여(Participation),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그리고 반응(Response)이다. 모델이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계마다 문화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것이다.

-
- 1) Stage 1: Identification of a cultural theme
 - Stage 2: Presentation of cultural phenomena
 - Stage 3: Dialogue (target/native cultures)
 - Stage 4: Transition to language learning
 - Stage 5: Language learning
 - Stage 6: Verification of perception
(target/native culture)
 - Stage 7: Cultural awareness
 - Stage 8: Evaluation of language and cultural proficiency

- 2)

Kolb		Mogan
concrete experience	→	participation
reflective observation	→	description
abstract conceptualization	→	interpretation
active experimentation	→	response

본고에서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교육을 위하여 위에 기술한 3개의 모델을 혼합하여 3개의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자기중심적 세계를 탈피하기, 둘째는 자기문화와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각력을 키우기, 그리고 셋째는 목표문화에 적절히 반응하기이다. 교재는 영화를 이용한다. 본고에서는 또래 집단의 극명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고 서로 다른 인종간의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2개의 영화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교실에서의 적용이 어렵지 않으므로 적절한 교재라 사료된다. 각각의 단계는 영화를 이용한 사례 중심으로 기술을 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의 제안이 실제 교실에서 문화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2. 자기 중심적 세계를 탈피하기

자기중심적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가 기준계(frame of reference)를 포기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상(fantasy) 영화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공상영화에서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안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인간과 다를바 없이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관을 받아들이는 간접체험을 하기에 공상영화는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영화 *The Chronicles of Narnia: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³⁾에 나오는 2개의 장면을 이용한다. 첫 장면에는 교수와 수잔, 그리고 피터와의 대화를 주의깊게 본다.

Synopsis: 루시, 피터, 수잔, 그리고 에드먼드가 교수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게 된다. 루시가 우연히도 옷장에 숨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시는 옷장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 하게 된다. 환상의 세계를 발견하고 심지어는 그곳의 거주자까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체험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했으니 그들이 믿을 리가 없다. 오히려 오빠 피터와 언니 수잔은 혹시나 루시가 미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뿐이다. 그래서 피터와 수잔은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는데-----

1. Susan: She thinks she's found a magical land. In the upstairs wardrobe.
2. Professor: What did you say?
3. Peter: Um--- the wardrobe upstairs. Lucy thinks she's found a forest inside.
4. Susan: She won't stop going on about it.
5. Professor: What was it like?
6. Susan: Like talking to a lunatic.
7. Professor: No, no, not her. The forest
8. Peter: You're not saying you believe her?
9. Professor: You don't?
10. Susan: But of course not. I mean, logically, it's impossible.
11. Professor: What do they teach in school these days?
12. Peter: Edmund said they were only pretending.
13. Professor: And he's usually the more truthful one, is he?
14. Peter: No... this would be the first time.
15. Professor: She's not bad and she's not lying, then logically we must assume she's telling the truth.
16. Peter: You're saying, we should just believe her?
17. Professor: She's your sister, isn't she? You're a family. You might just try acting like one.

번역⁴⁾

1. 수잔: 루시가 마술적인 세계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윗층 옷장에서요.

3) 2005년 12월 29일 개봉된 영화로서, 감독은 Andrew Adamson이고 상영시간은 139분이다.

4) 번역에서는 대본만 읽어도 상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괄호를 이용하였다. 이후의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2. 교수: 뭐라고?
3. 피터: 저.... 윗층 옷장에서요. 루시가 옷장 안에서 숲을 보았다는 거예요.
4. 수잔: 루시는 쉬지 않고 숲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5. 교수: 그거 어땠니?
6. 수잔: 꼭 미치광이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7. 교수: 아니, 아니, 아니, 루시말고, 그 숲 말이야
8. 피터: (놀라며) 설마 교수님이 루시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요?
9. 교수: 너희는 안 믿니?
10. 수잔: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아요.
11. 교수: (혼잣말로 한탄하는 듯) 요즘은 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12. 피터: 에드먼드가 그러는데, 지들이(에드먼드와 루시) 그거 거짓말한 거라고 했어요.
13. 교수: 에드먼드가 (루시보다) 더 믿을 만한 아이인가 보지, 그렇지?
14. 피터: 아니요, (에드먼드를 믿는다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15. 교수: (그렇다면) 루시가 나쁜 애도 아니고 거짓말도 하는 애가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볼 때 루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냐?
16. 피터: 교수님 말씀은 그 아이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17. 교수: 그 아이는 네 동생이야, 안그래? 너희는 가족이고, (그렇다면) 너희가 가족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지.

해설 : 1번에서 수잔이 교수에게 루시의 어이없는 말에 대해 말한다. 2번에서 교수가 다시 묻자 3번에서 피터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4번에서 수잔은 루시가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5번에서 교수가 루시의 증상을 묻는 줄 알고 6번에서 수잔이 루시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7번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교수가 그 숲에 관심을 보인다. 피터와 수잔이 놀라고 10번에서 수잔이 'logically'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 'logically'가 바로 수잔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동안 살아오고 배워 온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옷장안에 숲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교수가 수잔의 'logically'를 다른 'logically'로 격파하는 장면이다. 15번에서 교수가 하는 말을 보라. 루시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니 이번엔 루시가 한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17번에서 교수는 가족의 개념을 도입하여 루시의 말을 믿어보려는 행동은 필요한 것이라고 충고를 한다.

위의 대화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Q1: 수잔의 논리와 자기중심성의 관계를 말해보라.

Q2: 평가기준계의 견지에서 수잔의 논리와 교수의 논리를 비교하라.

같은 영화의 두 번째 장면을 보고 계속 자기중심성 탈피와 새로운 평가기준계를 도입하는 법에 대하여 기술해 보자.

Synopsis : 드디어 네 남매 모두 나니아에 발을 들여 놓는다. 이제 모두를 루시의 말을 믿게 되고 루시가 만났나던 폰5, 톱너스를 만나러 가기로 한다. 그러나 톱너스의 집은 엉망이 되어 있고 톱너스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편지만 발견하게 된다. 이때 그들 앞에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이들을 어디론가 이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것은 비버, 비버가 톱너스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데----

1. Lucy: It's a beaver.
2. Peter: Here boy. Here boy.
3. Mr. Beaver: Well, I ain't going to smell it, if that's what you want.

5) 반은 사람이고 반은 양 모양을 한 생물체이다. 톱너스는 폰의 이름이다.

4. Peter: Oh.... sorry.
5. Mr. Beaver: Lucy Pevensie.
6. Lucy: Is he all right?
7. Mr. Beaver: Tumnus. He gave it to me just before they took him.
8. Lucy: Is he all right?
9. Mr. Beaver: Further in.
10. Susan: What are you doing?
11. Edmund: She's right. How do we know we can trust him?
12. Peter: He said he knows the faun.
13. Susan: He's beaver. He shouldn't be saying anything.
14. Mr. Beaver: Everything all right?
15. Peter: Yes, we were just talking.
16. Mr. Beaver: That's better left for safer quarters.
17. Lucy: He means the trees.

번역

1. 루시: (앗) 비버다.
2. 피터: 이리 온, 이리 온.
3. 비버: (피터가 손을 코에 대고 흔들자, 그 손을 보며) 손 냄새 맡으라는 거면, 난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4. 피터: (비버가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애완동물 다루듯이 하다가, 비버가 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쑥스러워서) 아.... 미안.
5. 비버: 루시가 야닌가.
6. 루시: 비버는 괜찮아요?
7. 비버: 톱너스가 그 수건을 내게 주었거든, 잡히기 전에 말이야.
8. 루시: 톱너스는 괜찮은가요?
9. 비버: (대화하는 것이 외부로 새어 나갈까봐 주위를 살피며 4명의 아이들에게 말한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지.
10. 수잔: (비버가 제 집으로 들어가자 수잔은 모든 것이 수상쩍다고 느끼며) 이거 지금 뭐하는 것이죠?

11. 에드먼드: 수잔 말이 맞아. 우리가 저 비버를 말을 어떻게 믿지?
12. 피터: 저 비버가 톱너스를 안다고 그러잖아.
13. 수잔: 저는 비버잖아(동물이라고). 비버는 말을 못해야 정상이지 않아.
14. 비버: (고개를 다시 내밀며) 별일 없죠? (왜 안들어오세요?)
15. 피터: 아, 얘기중이었어요. (얘기가 끝나면 들어가려고 했어요.)
16. 비버: 안전을 위해서 들어와서 말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17. 루시: 비버는 저 나무들이 (우리말을) 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해설 : 1번에서는 루시는 비버를 만난다. 2번에서 피터는 평소의 행동대로 비버를 만나는데 3번에서 비버가 말을 하자 4번에서 피터가 사과를 한다. 5번에서 8번까지 비버와 루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안전을 위하여 9번에서 비버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수잔과 에드먼드가 미심쩍어 한다. 14번에서 비버는 재촉을 하고 애들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 Q1. 네 아이 중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대화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라.
- Q2. 네 아이 중 새로운 평가기준계를 받아들인 아이는 누구인가? 역시 대화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라.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란 생각 외로 어렵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자신이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공상영화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면 자기중심성 그리고 평가기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데 유리하리라 믿는다.

3. 문화 자각력 키우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자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황을

최소한 2개 이상, 예를 들면 모국어와 목표어의 문화적 평가기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1].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표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oran(p.13)[7]은 책과 책을 읽는 것이 다르며, 레스토랑과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이 다르듯이 문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문화에 참여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참여(a direct engagement)가 있다. EFL 상황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Moran(p.19)[7]은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Guess Who?*⁶라는 영화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영화에는 백인종과 흑인종간의 문화적 갈등이 두 인종간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전개된다. 이 사건의 전개가 문화적 자각력을 학습하는 데에 적절한 교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화의 몇 장면을 통하여 문화적 자각력을 습득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첫 장면부터 살펴보자.

Synopsis: 백인 청년인 사이먼은 흑인 여자인 테레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테레사 집을 방문하여 그 집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며칠 그 집에서 묵기로 한다. 오늘은 첫날이고 첫 저녁식사를 하려는 순간이다. 식사에는 테레사 할아버지 하워드도 참석하고 있다.

1. Howard: So they don't have any available young black men in New York anymore?
2. Theresa: Well, they just ran out last week, Grandpa.
3. Howard: Well,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y you chose to go this way.

번역

1. 하워드: 뉴욕에는 더 이상 흑인 청년이 없는 거냐?
2. 테레사: 음, 지난주에 흑인 청년들이 품절되었어

요, 할아버지.

3. 하워드: 음,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거다.

해설: 1번에서는 하워드는 손녀 테레사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약간 빈정대는 어조로 묻고 있다. 2번에서는 테레사는 재치 있게 농담을 하며 할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3번에서는 하워드는 테레사의 선택이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짚고 넘어가려 한다.

- Q. 하워드는 사람을 보자마자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 조건의 편견은 무엇인가? 그 편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흑인의 결혼 문화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결혼 조건과 비교하여 본다. 그리하여 자신과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즐기는 태도를 키운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을 보자.

Synopsis : 이제 기본적으로 식사가 시작 되었다. 사이먼은 공교롭게도 흑인에 대한 농담을 해야 하는 운명에 빠진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이샤는 테레사의 여동생이다.

1. Simon: So, what do you call one black man being chased by 100 white men?
2. Keisha: What?
3. Simon: The PGA Tour.
4. Keisha: I get it.
5. Simon: Right, Tiger Woods. There it is.
6. Keisha: That's good. That's cute.

번역

1. 사이먼: 100명의 백인이 한 명의 흑인을 쫓아 다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2. 카이샤: 뭐라고 부르는데요?

6) 2005년 9월 1일 개봉된 영화이며, 감독은 Kevin Rodney Sullivan이고 상영시간은 97분이다.

3. 사이먼: PGA 골프대회죠.
4. 카이샤: 맞다.
5. 사이먼: 맞았어요. 타이거 우즈죠. 바로 이겁니다.
6. 카이샤: 좋다. 멋진 농담이다.

해설 : 1번에서 사이먼은 농담을 시작한다. 2번에서는 카이샤가 묻고 3번과 5번에서 사이먼이 답을 말하자 6번에서 카이샤가 그 농담을 좋아한다. 이 대화에는 안 나타나 있으나 모든 가족들이 즐겁게 듣는다.

- Q1. 테레사 가족들이 사이먼의 농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Q2.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인(celebrity)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인종적인 차별의 아픔을 보상받았다고 느끼는 대화 장면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과 상대 문화에 대한 자각력을 키우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상대 문화에 이해심 뿐만이 아니라 존경심을 갖게 할 수가 있다. 다음 장면도 위와 비슷한 대화이다.

Synopsis : 같은 장소에서 식사 도중 사이먼의 흑인과 관련된 농담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시는 테레사의 아빠이다.

1. Simon: All right. How do we know that Adam and Eve weren't black?
2. Percy: How?
3. Simon: You ever try to take a rib... away from a black man?
4. Howard: That's pretty good.
5. Percy: That's pretty good.

번역

1. 사이먼: 좋아요.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2. 퍼시: 어떻게 알지?
3. 사이먼: 우리가 흑인 남자에게서 과연 갈비뼈를

빼낼 수 있을까요?

4. 하워드: 그거 참 재미있다.
5. 퍼시: 그거 참 그럴싸한데.

해설 : 1번에서 사이먼은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3번에서 그 이유를 말한다. 4번과 5번에서 할아버지와 아빠가 모두 흐뭇해한다.

- Q1. 테레사 가족이 이 농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Q2. 여러분의 기질상의 강점을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이 어떠한가?

다음 장면에서는 위의 두 장면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Synopsis : 같은 식사 장면이다. 계속되는 사이먼의 농담이 드디어 사고를 치게 된다. 이번 대화는 사이먼, 퍼시, 그리고 하워드이다.

1. Simon: Okay. What are three things... that a black man can't get?
2. Percy: What is that?
3. Simon: A black eye, a fat lip and a job.
4. Howard: I tell you, I'm gonna kick this boy's ass.

번역

1. 사이먼: 좋아요. 흑인이 가질 수 없는 3가지는 무엇일까요?
2. 퍼시: 뭔데?
3. 사이먼: 멍든 눈, (맞아서) 부은 입술 그리고 직업.
4. 하워드: 내가 말했지? 이놈은 내가 혼낸다구.

해설: 몇 번의 농담이 식사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에 힘을 얻은 사이먼이 이번에도 신이난 듯 농담을 시작한다. 기대를 걸던 사람들은 3번에서의 사이먼의 농담에 어이없어 하고 드디어 4번에서 하워드는 감정이 폭발하고 만다.

Q1. A black eye가 우스운 이유는 무엇인가?

Q2. 농담할 때 사이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번 장면에서 사이먼은 흑인들의 내면 속에 있던 아픔을 건드리고 만다. 여태까지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잘 이끌던 사이먼이 이번에는 왜 실수를 하였을까? 사이먼은 흑인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백인 문화와 흑인 문화에 대한 자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4. 목표문화에 적절히 반응하기

자아를 벗어나서 상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평가기준계를 만들어낸 다음 자아 문화와 상대 문화를 비교하여 자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높였다면 이제는 행동으로써 반응을 적절하게 할 때이다. Bennett[2]의 DMIS에 따르면 자아상대 단계가 적절한 반응의 과정이 될 것이고

Crawford-Lange & Lange[4]에 따르면 7단계에 속하는 문화자각력이 적절한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Moran[7]의 경험학습사이클에 의하면 최종 단계가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 모델을 통한 단계들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성향이 짙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영화를 이용하여 적절한 반응이란 어떠한어야 하는지를 언급할 것이다. 영화는 **Guess Who?**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흑인 문화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사이먼이 겪는 상황을 통해서 적절한 반응의 '적절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Synopsis : 첫 장면에서 사이먼 자신이 얼마나 흑인에 대해서 공정한가를 테레사 식구들 앞에서 공언하고 있다.

7) 이미 번역에서 답을 알려주었으나 실제 문제에서는 번역에서의 'a black eye'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했다.

Simon: I can tell you this. Last Thanksgiving my Uncle Dave said a black joke at the table, right? So I said, right in front of the whole family: "Look, that's inappropriate, we're not gonna have it." And... I think that's what you gotta do. To change people, you just gotta attack it one at a time.

번역

사이먼: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서 제 아저씨 데이브가 식사 도중에 흑인과 관련된 농담을 하였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지요. "잠깐만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되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씩 (즉시)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요.

Q. 윗 대화에서 사이먼은 인종차별이 유발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이먼은 잘못된 즉시 지적되어야 제거된다는 행동주의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적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인식이라는 것은 몸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격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차라리 이해심을 통해 상대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용해시키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Synopsis : 두 번째 장면에서도 사이먼은 테레사 식구들, 특히 아빠인 퍼시와 답답함을 느낀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용기를 내어 말을 하기 시작한다.

1. Simon: It's okay. Look, it's fine. I'm not gonna back down.
2. Theresa: Back down, Simon.
3. Simon: The only way to break down barriers is to have everything out in the open, right? Right?

번역

1. 사이먼: 괜찮아, 괜찮아. 물러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2. 테레사: 가만히 있어, 사이먼.
3. 사이먼: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야, 안 그래, 안 그래?

Q. 사이먼이 생각하는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사이먼과 동의하는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현상은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생각된다. 내가 솔직하게 마음속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내 역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털어놓은 마음속이 의외로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문제를 오리무중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정리

개인의 갈등에서 시작하여 집단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인종간의 갈등에 이르기 까지 지금의 세상은 시끄럽기만 하다. 모든 원인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문화 교육은 단순히 외국어 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외국어 교육 현장이라는 것은[8] 외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를 가르치다 보면 관련된 문화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언급하게 된다. A문화와 B문화가 특정된 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결코 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모두 두 문화 사이의 다른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많은 차이점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반대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 흥미를 갖다가도 지식이 축적되면서 다

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고 거북스러운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종래의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의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때로는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인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자아가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겸손해지고 남과 더불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문화교육은 목표대로 가는지 의심스럽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배운 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영화를 이용할 것을 고집하였다. 우리와 친근한 영화를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상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유를 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오히려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이해심과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문화의 차이란 개인의 차이와 별다를 바가 없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차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생활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문화라는 거대한 개념 앞에서는 마치 장벽을 바라보듯 답답해하며 그들과의 만남에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어이가 없다.

본고의 2장, 3장,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가 지닌 차이를 즐기며 마음으로 풀어 나가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배운 작은 문화교육 수업이 현재 인류가 겪는 갈등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이승은, “어린이 영어 문화교육에 관한 분석”,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5, pp.496-504, 2012.

[2] B. Bateman, "Achieving affective and behavioral outcomes in culture learning: the case for ethnographic interviews," *Foreign Language Annals*, Vol.37, No.2, pp.240-253, 2004.

[3] J. M. Bennett,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pp.109-136,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93.

[4] J. M. Bennett, M. J. Bennet, and W. Alle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language classroom," In R. M. Paige, D. L. Lange, & Y. A. Yershove, *Culture as the core: Integrating culture into the language curriculum*,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on Language Acquis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pp.13-46, 1999.

[5] L. M. Crawford-Lange and D. L. Lange, "Doing the unthinkable in the second-language classroom: A process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T. V. Higgs (ed.), *Teaching for proficiency: The organizing principl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pp.130-137, 1984.

[6] V. B. Galloway, *Communicating in a cultural context*, Workshop given at the Northeast Conference Winter Workshop, Wakefield, MA, 1985.

[7] 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4.

[8]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Boston: Heinle & Heinle, 2001.

[9]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Yonkers,

NY: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1999.

[10] A. Omaggio-Hadley, "Teaching for cultural understanding," In Omaggio-Hadley (3rd ed.),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pp.345-389, Boston: Heinle & Heinle, 2001.

저 자 소 개

김 용 섭(Yong-Seop Kim)

정회원



- 2000년 5월 : UMASS 응용언어학(석사)
- 2007년 8월 : 국민대학교 문학박사
- 2007년 11월 ~ 현재 : YNJ 평생교육원 대표이사

▪ 현재 : 서일대학교 영어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문화교육